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관점에서 본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Evaluations over Operating Projects and i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pecialist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조 교수 김 성 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im, Sungsook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 Hee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ffects and problems in the support projects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to present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10 specialists in 3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Daegu, who organize and operate projects for femal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were interviewed via focus groups and then interviewed in-depth.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effect of the support projects was an increase in participation and concern of femal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2)problems of the support projects included lack of flexibility of the projects, and overlap of projects among

* 주저자: 김성숙 (kssch@kmu.ac.kr)

** 교신저자: 홍성희 (hsh@kmu.ac.kr)

centers. 3)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improved operation by extending the support networks to other support centers and facilities within the community, increasing the individualized programs based on their specialties, and promoting integrated projects (such as combining language courses and cultural programs, family-support programs and cultural events). Further studies will be extend to find out model cases from support projects of several centers, expand them to other centers, and verify its effects on operating projects.

Key Words : 다문화가족지원센터(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종사자(specialist), 사업(support projects)

I. 서론

농촌지역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08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결혼의 11%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1998년 국적법 개정을 계기로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도 한국계 중국인에서부터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한민족’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에 일대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결혼이민여성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결혼생활 및 한국사회 적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생활문제로는 우선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며(김오남, 2006a; 한건수, 2006), 문화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부적응문제가 있다(양선희, 2004; 한건수, 2006). 또 남편과 가족은 이들의 적응을 돋는 지지원이 되어야 하나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나 고유의 가족문화로 인해 오히려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거나(홍기혜, 2000; 김상임, 2004; 윤형숙, 2004; 최금혜, 2005) 심지어 남편이 아내에게 학대와 폭력을 행사하여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의 문제가 발생한다(김상임, 2004; 윤형숙, 2004). 또 이들에게 자녀양육은 한국인 여성의 경우보다 더 어렵고 심각한 과제로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이나 자녀의 학업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더구나 기대했던 경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고와 갈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오남, 2006b;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각 부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상담을 중심으로 수행해왔다. 정부의 지원은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21개소 지정함으로써 본격화되었는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문화 이해사업, 교육사업, 상담사업, 자녀지원사업, 네트워크 형성,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다(여성가족부, 2006a). 2006년 한 해 동안에도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고 지원이 이루어진 결과 여성 이민자의 1/5 정도가 한국어 교육, 한국

요리 강습, 한국문화 관련 서비스를 체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설동훈 등, 2006).

정부는 통합적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정책을 표방하고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동법에 근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말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만 100개소이며, 2010년에 59개소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국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취·창업교육, 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과 방문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되어온 사업 중 한국어 및 한국문화적응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의 초기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이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윤형숙, 2004; 설동훈 등, 2006; 이은주, 2007; 채옥희·홍달아기, 2006).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음식문화, 풍습 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우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이민을 개방해온 외국의 경우에도 언어의 능숙함은 여성에게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배움을 유도하는 요인이며(Nah, 1993; Goldman, 1999), 새로운 문화에의 재정착과 적응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져 왔다.(Ataca & Berry, 2002). 즉, 언어장벽은 문화적 적응과 사회 정착에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볼 때 한국어 능력이 이주여성의 결혼생활과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어 교육 이외에 취업교육 및 훈련, 컴퓨터·정보화 교육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등, 2006).

즉, 취업교육 및 훈련, 컴퓨터·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데, 이는 이들의 높은 취업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채옥희·송복희, 2009; 계선자·강혜경·정미선, 2009; 손기영, 2010)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의 저소득과 강한 취업욕구, 이로 인한 부부갈등 및 낮은 자존감 등을 이유로 취업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실무자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방문교사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홍성희·김성숙(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업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과는 달리 방문교사들은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즉, 방문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자신의 생활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존 교육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의식과 자발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취업에 앞서 취업자로서의 더 근본적인 자질인 성실한 태도나 책임의식을 먼저 강화시켜야 함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 설동훈 등(2006)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미취업 여성이민자는 주로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며, 82%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취업의향이 있으나 자녀양육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과 직장이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적응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이

민여성의 초기 적응과정에서는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적응교육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나 다양한 출신국의 여성들이 유입되고 거주기간에 차이가 나면서 여성 개인의 본국에서의 교육수준과 한국어능력 및 사회적응력,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개인의 역량과 가족구성 등의 개인적 차이와 도시 농촌 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후속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어교육과 같이 필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과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후속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들의 주관적인 필요성과 요구사항의 수준을 떠나 센터의 사업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운영의 효율성에 입각한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의 방향성과 후속사업의 틀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여러 부처나 민간기관과의 사업의 연계성과 특성화를 위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정 사업

의 실시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을 통해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오남 등(2008)은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은 남편의 결혼에 대한 인식, 아내 나라 문화 인식, 의사소통, 부부갈등 해결, 자녀교육 태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회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해 볼 때 결혼에 대한 인식, 긍정적 의사소통, 애정적 자녀양육태도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즉, 남편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부부간 의사소통에 있어 서로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으며, 좋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양육태도를 갖게 되었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긍정적 의사소통, 애정적 자녀양육태도 영역에서의 부부 적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내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 자신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화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대부분 남편들의 교육 참여 동기는 처음에는 높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차 변화를 보였는데, 프로그램이 남편 자신만이 아닌 부부와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를 선택한 것이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채옥희와 홍달아기(2006)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10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응력 향상을 포함한 가정생활내용으로 구성된 10회의 교육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 교육과정 중 개인별 변화와 집단의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 수집한 행동관찰 기록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주관적인 평가를 병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균이 높아졌으므로 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적인 갈등, 소외감, 고독감 등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를 동료들이나 결연된 친정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스스로 힘을 갖게 되고 타인을 수용하고 적응력이 향상된 것이다. 또한 교육이 진행될수록 응집력이 강화되었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마음을 열게 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채옥희 등(2009)은 한국어 교육과 가정생활 적응교육이 결혼이민자들의 초기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한국어와 가정생활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교육 지도사가 지역별로 찾아가 집합교육을 실시한 경우 결혼이민자들의 참여도가 높아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교육을 동시에 받은 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를 빨리 깨우쳐 효과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며, 한국어교육과 가정생활교육 내용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 결혼이민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뿐 만 아니라 면단위의 찾아가는 거점형 집합교육, 센터로 나

와서 참여하는 집합교육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여성가족부(2007)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된 사업은 한국어교육이고 다음이 정보화교육, 한국요리강습 순으로 나타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0)에서 실시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받은 복지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 서비스 수혜율은 50.6%로 2006년의 21.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비율도 77.0%로 2006년의 55.6%에 비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어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교육 및 사업의 단기성, 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적응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그 남편이나 가족, 출산자녀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미비한 대상주체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정일선, 2006; 김오남 등, 2008; 채옥희 등, 2009; 홍성희 등, 2009)에서 지적되었다.

보건복지부(2005)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교육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결혼이민자 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2005)가 부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문화적응, 갈등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결혼부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실시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여성가족부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도 하에 결혼이민자 가족통합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남편, 시부모, 자녀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는 한편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통

합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도 1회성으로 끝나게 되므로 효과와 적응 면에서 미약함이 지적되었다(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

김오남(2006)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부모, 모국인 친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예방과 부부갈등 감소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지지의 확충을 위해 시부모와 남편을 대상으로 가정기능 강화, 가족통합, 문제해결능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경희(2006)는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매우 단편적이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편, 시부모, 자녀, 그리고 지역사회 여건 등의 미시, 중간, 거시체계를 포함하는 생태 체계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또 최금해(2005)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홍달아기 등(2006)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이 타문화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가족 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초기의 지원사업이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적응 등 일부에 집중되어 제공주체별로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정일선, 2006; 홍성희 등, 2009; 손기영, 2010)도 지적되고 있다. 2006년에 조사된 정일선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 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법무부, 농림부, 교육부, 노동부, 정통부 등 9개 부서에 달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지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부처 간 경쟁과 중복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농림부, 문화관광부가 한국어교육 위주의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업까지 더해지다 보니 중복성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2005)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중 한국어 및 문화적응교육의 이용율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실제로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 교육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제공주체의 중복성, 사업의 유사성과 단기성, 대상자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고, 남편을 포함한 가족원 대상의 교육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개선방향

초기의 결혼이민자가족 또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결혼이민자 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족지원 분야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들의 적극적 시행이 강조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구체적으로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이나 부모자녀관계 강화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남편이나 시부모를 비롯한 국제결혼가족의 다른 가족원들이 결혼이민자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전라남도, 2006)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김오남 등(2008)은 결혼이민자 사업 실시 기관 종사자, 관련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여성 부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편이 아내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수용하는 교육을 통해 문화 차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신부와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들을 위한 생활교육, 기초소양교육 등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결혼이주여성 부부는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데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주여성에 대해 남편, 시모, 자녀가 당당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가족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또 다문화가족은 요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이 자발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서도 단위 프로그램의 운영보다는 관련성이 높은 한국어와 문화 적응, 취업과 보육 등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2010)에서 실시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복지 욕구가 가장 큰 분야는 자녀양육 학습지원(62.7%), 한국어 교육(60.4%), 한국사회 적응 교육(51.4%), 가족상담 교육(41.2%), 임신출산 지원(38.4%)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자녀양육 학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이 자녀양육 및 교육자로서의 부담이 커지며 취학한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기영(2010)은 선행연구들(설동훈, 2005; 설동훈 외, 2006; 정기선 외, 2007)이 보고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공적 사회 정착과 적응,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언어의 장벽과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직종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창업을 제시하면서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및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개선책으로는 초기에서 지적되었던 가족 대상 및 시민 대상의 교육의 필요성과 최근에는 가족통합사업이나 연계사업으로 구성되는 등의 개선 방향이 제안되었으며, 새로운 사업으로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학습지원, 경제적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사업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세부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러한 효과와 문제점을 종사자의 견지에서 평가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평가된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업을 지속시키고 운영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가 본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가 본 사업 운영의 문제점은 어떠한가?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가 본 미래의 사업의 방향성과 개선점은 어떠한가?

2. 자료수집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는 대구광역시 내의 6개소 중 2010년에 개소한 2개소와 면접 요청에 응하지 않은 1개소를 제외한 3개소이다. 연구대상지역을 대구광역시로 한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다문화가족의 남편의 직업이나 가족 구성, 센터 이용의사와 거리적 접근성 등의 상황적 특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개 센터는 운영주체가 각각 대학교, 사회복지재단이며, 2개소는 공단지역과, 1개소는 농공지역에 인접해 있어 주변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화기술지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심층면접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민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은 한 인간집단이 어떤 질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질서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구성주의 또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근거를 둔다(조용환, 2006). 심층면접과 집단면접은 두 가지 목적에서 실시하였는데, 면접용 질문목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과 다양한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종사자들로부터 포괄적인 운영상의 문제와 종합적인 견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달서구의 집단면접은 2010년 2월 17일에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센터 종사자 7인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연구자 2인이 청취하였고 이를 면접용 질문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면접을 일관성 있게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면접용 질문을 사전에 작성하여 활용하였고(부록 참조), 1차 면접의 내용을 기록, 확인한 후 미비한 내용과 더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한 다음 면접에 대비하였다. 2차 면접은 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괄업무담당자 1인과 심층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른 2개 센터에서는 총괄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에 따라 세부적인 의문사항은 세부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질문과 전화인터뷰로 보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례별로 내용을 정리, 기록한 후 연구문제에 맞게 중요한 주제들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틀을 차용하여 구성하였다(표 1, 표 2 참고). 본 연구의 목적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전반적인 평가에 있으므로 현행 지원사업의 운영에 기초한 평가 및 요구도의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의 조사대상 센터의 사업을 <표 2>의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비교해보면 달서구의 경우 대학에서 운영하므로 이용자에게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감과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종사자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서 센터 운영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다른 조사대상 센터 역시 이 협의체의

1) 이 사업의 주관은 대구시 소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순번제로 하되 2009년도의 경우 주관센터가 달서구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관점에서 본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표 1〉 2009년 대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사업

센터명	구분	내용
달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특성화사업	-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네트워크 및 홍보, 다문화가족자원봉사단-멘토(상담)자원봉사단, 종사자역량 강화, 협의체 구성 및 회의
달성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취·창업교육, 상담, 회계 전반, 네트워크 및 홍보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 아동양육교육, 임신출산지원서비스, 소그룹활동, 지도사 교육 등), 가족상담통역, 일상생활통역지원, 경찰서, 법원 통역, 언어발달지도사업, 대상발굴, 아동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취·창업지원교육, 가족통합 교육사업,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특성화사업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표 2〉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구분	내용		비고
사업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취·창업 지원, 자조모임, 상담	필수
	특성화사업	-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선택
홍보 등 운영	- 육아정보나눔터, 멘토링·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기관협약 및 외부사업연계 등		

출처: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단 홈페이지

구성원으로 각 센터의 종사자들이 운영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각 센터 뿐 아니라 대구시의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주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달성군 센터의 경우 행정구역 상으로는 대구광역시이나 농촌지역에 인접해있고 실제로 방문사업은 면소재지까지 실시되고 있어 센터가 담당하는 지역이 상당이 넓다. 한편 달성군 여성문화복지회관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어 센터이용자는 복지회관의 강좌를 수강하는데 유리하며, 복지회관이 조리실시설을 갖추고 있어 취업교육사업으로 조리사 자격증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서구

의 경우도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운영되므로 종사자가 사업과 관련 정보를 얻는데 유리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른 분석의 틀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대범주로서 공통교육과 특화교육을 기초교육분야와 특별교육분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통교육과 특화교육은 사업 집행 상 분류로서 교육프로그램의 범주구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교육분야에서 한국어교육과 가족통합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한국생활의 정착을 위한 기본 소양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상담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후관리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상담프로그램이

교육적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행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포함시켰다. 특별교육분야의 소범주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는데 문화정서지원이나 역량강화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자녀지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은 각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되었다면 장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현행 사업에 대한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사의 간략한 평가를 제시한 후 교육적 요구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범주에서 더 많은 요구도가 나타났는지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으나 그 교육적 내용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분석틀의 각 범주마다 연구 참여자들이 강조한 내용을 제시하고, 주요어를 추출하였다. 또 각 참여자 집단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간의 관점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교육사업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 다문화가족들의 사랑방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할구역 별로 설치되어 있다. 그 이전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은 행정구역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되어 왔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 서구, 남구, 달성군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혹은 ‘결혼이민여성지원센터’로 출범하여서 여성중심의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다가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 아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명칭변경에 멈추지 않고 각종 지원사업의 양과 질에서도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능력, 가령 한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여 수준별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지원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찾아가서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 방문교사 파견 사업이 채택되어 추진되었다. 셋째, 과거의 지원 내용이 결혼이민여성 중심의 개인적 교육사업 위주였다면 현재의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족 전체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의 전문화이다. 고급수준의 한국어 강사, 언어치료사, 통번역 프로그램, 상담치료사 등 전문가를 대거 고용 및 연계함으로써 일반수준이 아닌 전문수준의 지원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 내용에서도 위에서 지적된 경향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달라진 위상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들의 인식과 지원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가족들의 무관심속에 결혼이민여성만이 참여한다는 문제점(보건복지부, 2005; 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 정경희, 2006)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참여자들은 처음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들은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등 대부분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추천을 통하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2008~2009년도에는 이민자들 즉 신규인원들이 100~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찾아온다고 해도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에 비해 현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국한지 꽤 지난 분들이라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혹은 주변인들에게 소문

을 듣거나 구청에서 정보를 듣고 오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신뢰도도 쌓인 상태고, 무엇보다 예전보다는 가족들이 센터 방문을 지지해주는 편이라 여성들의 센터 이용 또한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이용도 증가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주여성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아직 까지 접근성에 대하여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과 시설의 상태는 활성화에 걸림돌도 될 수 있고 유인책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내에 위치한 서구와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해 달성군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기까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편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방문서비스’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달성군은 지리적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 인근지역 분들 밖에 이용을 많이 못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원이나 복지관 또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달성군은 농협을 통해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달성군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구역까지만 센터에 나오세요.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으니까요. 자동차로 가도 한 시간쯤 걸리죠. 논공지역도 사실상 셔틀버스를 타고 오면 30분씩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셔틀 버스가 있어서 많이 나오시죠.(달성군)

“예를 들면 송년회라든지 입학식을 센터 공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복지관의 강당을 이용합니다.

50명이고 100석 이렇게 오시니까요. 그런 물리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좋은 점은 점심을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들이 많이 오십니다”. (서구)

또한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은 각종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체 내의 시설이외에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의 스포츠, 공예 등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고, 달성군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복지문화센터 건물 내에 있어 문화센터의 스포츠, 요리실 등 다양한 시설과 자격증 및 공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달서구의 경우 대학교의 각종 강의실과 실습실로 공간 활용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관련 기관의 공간 및 시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초과제의 경우 모든 센터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어 센터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관행상 어렵다. 각 센터마다 기초과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문화가족의 비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수행과정에서 특정 센터로의 쏠림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참여자에게 사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본 결과, 특정 센터의 유인책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센터의 참여자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기관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은 상당히 희망하고 있었다.

“만약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한군데서는 기념품을 준다더라, 간식을 준다더라, 소문이 나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소문이 엄청나게 빨라요. 저희가 모르는 정보도 그분들은 어디선가 듣고 오셔서 ‘여기도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성군)

“위탁기관 만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위탁기관이 대학, 복지관, 시민단체 등 다양하구요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남니다. 학교는 학교의 특성, 예를 들어 인적자원이 풍부하거나 교육환경에 유리한 강점들은 살리려고 노력하고, 시민단체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재활사업 등에 좀 더 집중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달서구)

기본사업의 경우 관할 구역의 다문화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특성화사업의 경우 원하는 다문화가족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도 거점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의체 활동은 기대할 만하다. 대구의 경우 올해부터 대구 지역 6개 센터의 연합체 형식인 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체가 발족되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대구 6개 센터가 센터장님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시고 직원들은 격월로 센터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구요. 대구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다문화가족 방통대 입학. 방통고등학교 입학 지원, 대구 교대 학생이랑 다문화 가족 자녀들 멘토링사업, 치과 진료 사업 등 동일한 사업은 공동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기관도 같이 정하고 포스터도 같이 만들고 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서구)

2. 언어와 소통에 관한 지원 사업- 필수와 경쟁 속에서도 정착의 터전이 되다

한국어 교육사업은 개인, 가족,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 능력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필수적 성격인 기본사업에 속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에게 그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새로운 과제 등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였더니 그들은 한국어교육은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적 사업이자 다른 사업의 출발점인 것으로 ‘없어서는 안될’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대체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 수준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실무자들도 한국어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사업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며 수혜율이 높다는 선행연구(채옥희와 홍달아기, 2006; 채옥희 등,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10)의 조사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한국어 교육사업이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법무부산하의 다문화센터, 그리고 여러 관내 복지기관에서 동시에 제공되고 있어 다소 중복과 과당 경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점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정일선, 2006; 홍성희 등, 2009; 손기영, 2010).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지정해주는 기관에서 꼭 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

흔이민여성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세요. 예산을 이미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해나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

둘째, 기초과제인 한국어교육도 기관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이민자의 구성 및 수요에 부응하여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어교육에서 입학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운영상 교육프로그램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도 제기되었다.

“학기 초에는 항상 두 반에서 세 반으로 시작해요. 유입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초급반이 나중에 넘쳐나고 개인차가 너무 커져요. 진도는 이미 많이 나가있는데, 초기입국자가 입학하면 따라가지 못하니 집에 돌아가서 머리 아프다고 하세요. 고민 끝에 작년부터 초.중급반은 진행을 하면서 계속 반을 늘려가는 형태로 분반을 합니다. 작년에는 마지막에는 여섯 반까지 늘어났어요.” (달서구)

“한국어교육은 회기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센터가 그보다 훨씬 넘게 운영해요. 특별하게 저희 센터는 한국어 잘하시는 베트남 출신, 중국 출신 한분씩을 뽑아서 결혼이민여성이 결혼이민여성에게 가르치는 초기 입문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어도 베트남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분들도 묻고 싶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분들만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 복습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가르치는 이민여성에게는 약간의 시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분들도 한국어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깐 나도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감과 목표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달성군)

셋째, 센터의 운영기간이 오래 된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고급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한국어 고급과정에서의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이 시급하고 실제생활에 응용되는 주제에 관한 도서들도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반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기출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익한 생활정보도 제공하면서 한국어도 익힐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고급수준 이상이 된다면 계속 문법공부만 하는 것 보다는 가정통신, 구청에 가서 서식 작성하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나오는 딱딱한 문어체들을 이해하도록 알려주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들은 남편 없으면 못해요. 아니면 센터종사자나 방문지도교사에게 같이 가달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한국어 수업에 접목하려고 자체적으로 교재 개발 중이에요” (달서구)

다음으로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자녀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질문한 결과, 언어치료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하여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막연히 괜찮다 혹은 늦게 발달해도 나중에는 다 된다’는 식의 인식이 만연되어 있어 자녀의 언어지체 등의 장애를 조기에 치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느린 애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깐 시어머니나 남편들의 학력이 도시보다 낮아요. 낫다보니깐 잘 몰라요. 아이의 언어발달이 늦은데 ‘괜찮아. 너희 남편도 저 나이 때 아무것도 못했는데.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는 식으로 반응 하시죠. 그러면 저희 언어 치료사 선생님이 계속 전화를 해서 설득해요. 또 초창기에 언어치료 받았던 아동들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그럼 우리 아이도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신청해 와요” (달성군)

“처음에는 방문교사와 동행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은 사전 정보를 탐색한 후 찾아오십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은 특정시간에 수업을 들으려 오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여기 센터보다는 어린이집을 아주 신뢰합니다. 또 현재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아이

가 자라면 괜찮아질 거라 막연히 생각합니다.” (달서구)

또한 언어치료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거나 방문교사 한국어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낮추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재혼가족 또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교육봉사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보건복지부(2010)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자녀의 학습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학습과 관련된 교육사업이나 멘토링, 상담사업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수업도 필요합니다.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주 대상입니다.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어시험을 봐야하는데 한글도 모르는 상태라 입학이 어렵습니다. 또 재혼가정의 중국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높습니다. 학원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센터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2년 동안 집밖을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있었는데 외국어에 능숙한 자원봉사자와 같이 어울리게 하고 한글도 가르쳐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달서구)

3. 이해와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 드러내기와 치유하기

우리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은 그동안 문화적 이해부족과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당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적응과 가족갈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통합교육과 가족상담은 가족갈등의 사전 및 사후적인 문제해결 프로그램이다. 참

여자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가족갈등 발생의 추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갈등이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인상을 받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가족갈등과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학대 등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참여할 정도의 다문화가족이라면 가족간의 사이가 상당히 좋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등문제가 표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처음 통역을 시작했을 때 고부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방식이 다른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들의 센터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마음을 열고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서구)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한국 가정도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시니까 그 비율은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폭력이 더 많고, 더 심각하기보다는 좀 더 눈에 띄는 거죠. 한국가정은 쉬쉬하는 것이 비해 다문화가족은 좀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달성군)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분들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홍보해서 친구나 이웃에게 알려주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서구)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은 본인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을 나타낸다.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향은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인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때문이라는 선행연구의 지적(전라남도, 2006; 최금해, 2005; 홍달아기, 2006)과 유사한 이유이다. 참여자들은 많은 다문화가족이 ‘드러내기’ 이전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센터가 드러내기를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인 한국인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증가되어 할 것이다.

“개인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식이나 가치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임을 드러내고 센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작년에 저희가 전국 실태조사를 했는데, 농촌지역은 90% 이상 협조를 보인 곳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언제 국가가 나를 도와줬다고 이제 와서는 나 숨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왔냐고.. 절대로 집에 찾아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실태 조사를 거부하지는 분들이 많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사율이 40% 겨우 넘었어요.” (달서구)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깐 아버님들이나 시어른들이 좀 폐쇄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방문교육을 막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끌어오기가 초반에는 조금 힘이 들었어요. 좀 힘들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오면 저희도 필요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고 노력을 할 텐데 오히려 그분들은 숨으세요. 남편 자조모임을 할 때 ‘다음번에는 무조건 친구 한분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라고 부탁하는데 어떤 아버님은 술까지 사 먹으면서 설득했는데 ‘우리부인 외국인인거 다 티낼 일 있냐. 싫다.’고 했다는 분들이 많

으세요.” (달성군)

“방문교육 대상자 중에는 기초수급자 등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가정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방문교육을 기피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요. 교사가 방문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문교사는 대상자들이 센터를 찾게끔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

결혼이민여성 가족들의 참여 추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참여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2005), 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2006), 여성가족부(2006) 등에서 지적한 가족원의 참여부족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했던 사업 분야도 가족통합교육 부분이었다. 참여자들은 가족교육사업의 경우 정답이 있을 수 없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따른 교육 요구가 달라서 시행착오가 나타났으며, 경험이 축적되면서 참여자들 특성에 적합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결혼이민자 당사자들이 많으셔요. 문화체험은 가족도 많이 가세요. 문화 활동, 체육대회 등에 대한 남편들 참여도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서구)

참여자들은 가족통합교육사업은 그동안 몇 차례의 캠프나 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가 많았지만 지속적인 사업은 집합식 교육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며 그 집합식 교육은 일회성으로 다수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통합교육사업은 실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으며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언어별 교육, 부부만 별도 교육, 특정 주제에 대한 개

별상담 등 교육요구가 다양하였다. 이는 김오남 등(2008)이 남편의 기초소양교육, 생활교육, 자존감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가족교육은 회원 분들이 이론 수업보다는 실생활 중심의 사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서도 여러 경우의 부부를 직접 모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언어별, 부부 분리 수업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구도가 높은 만큼 우리 센터가 준비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계획했던 것과 달리 많이 미흡했습니다.”(달서구)

“시부모님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등을 구상했었는데, 나오실 만한 분이 없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잘 안 나오시고,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시어머니 중에 본인은 문화센터수업 듣고 며느리는 다문화수업 들어가는 식으로 바쁘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달성군)

다문화가족의 가족 갈등은 주로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강요에 기인하므로 결혼이민여성이 주로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가족 갈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종종 남편들이 버림받는 경우가 그 예이다. 남편들이 버림받는 원인은 고연령, 무능과 같은 남편 측의 원인이 표면적이나 결혼이민여성이 적응을 거부한다거나 무책임한 성격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즉 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관념’이 한국사회의 통념에 비해 더 허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2000년 이후 10년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적응을 통하여 능력이 향상된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남편들은 나이 들고 무능력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다문화가족들의 해체나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남편이 더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이 제멋대로인 어린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방문을 요청해도 가정사를 남한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센터에 오지 않아 도움을 못 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아내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친지들이 있을 때만 한 국식으로 행동해달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 결국 이혼했습니다.”(달서구)

“오히려 이혼에 당당합니다. 우선 나이가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더 심하죠.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다시 결혼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꼭 결혼하지 않더라도 공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달서구)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의 자조모임이 다문화가족들의 참여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조모임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에 대하여 자조모임이 희망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특히 다문화 가족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가족까지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편들의 자조모임은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가장 활발했던 남편 자조모임은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베트남 자조모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은 조기정착도움을 주는 정도였고 열성적인 한 남편의 주도 하에 활성화된 것이었다. 반면 달성군은 센터는 의도적으로 자조모임을 만들고 활성화되도록 유도한 경우로 주목된다.

“작년에 베트남 자조모임 ‘꼬렌꼬렌’이라고 해서 mbc 방송대상 받았었거든요. 선배 베트남 여성들이 후배 베트남 여성들한테 한국 조기정착 프로그램이

라는 자조모임을 만들고 발간지도 냈어요. 우리 센터에 자조모임 아버님들이 별도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거의 회장님은 매일 들리시구요. 임원단은 정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전체정기회의가 작년에는 매달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회의록 작성 하시고 또 팀을 나누어서 비슷한 지역에는 팀장을 둘면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일단 등록했던 가정이 50~70 가정 정도, 올해는 좀 줄어서 30 가정 정도 됩니다” (서구)

“초반에 남편 자조모임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진정한 자조모임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자조모임이 생겨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센터에 있는 사업도 좀 더 알게되고, 외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가 홍보도 해드리니깐 만족도도 높아지시고. 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아내나 자녀들은 프로그램을 좀 더 열심히 듣고요.” (달성군)

남편들의 자조모임의 활동은 집단 교육보다는 정기적 모임, 봉사활동, 회원 가족방문 등 친목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홍보의 장이 되기도 하고 이의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남편들의 자조모임이 필수과제가 되어 모든 센터에서 자조모임의 발대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자조모임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정립은 각 센터 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평일 모이시고 올해는 봉사활동도 하시구요. 교육도 받으세요. 임원단 분들은 리더교육, 아빠교육 받으시고 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힘든 가정 방문도 하시구요. 힘이 자꾸 세져요. 요구도 많아지시고요. 작년에는 아산재단의 지원도 받아서 다모회라는 이름을 정하고 예산도 받았어요.” (서구)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강의도 해봤는데

오히려 강의는 싫어하세요. 밤에 일에 지쳐서 겨우 오는데 또 와서 공부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이제는 간단한 프로그램 설명하고, 외부 사업도 설명하고, 한 시간 정도는 거의 수다 떨어요. 수다를 떨면서 오히려 아버님들이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지금 등록인원은 한 4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15 명 정도 오세요.” (달성군)

실무자들은 가족통합교육사업의 발전된 모습을 문화활동에서 찾고 있었다. 지역축제이나 센터 자체적인 문화프로그램에서 가족통합교육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가족교육의 실시보다는 각 센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사업의 개발의 여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통합교육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교구의 내용들이 한국문화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향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다문화적인 교육교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달성군에 해마다 4월에 ‘비슬산산골체’라는 큰 축제가 있어요. 작년에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의 옷을 입고 집적 요리를 만들어서 다문화 음식시식회를 열었어요. 그런 거 한번이 강의 10번보다 효과가 높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있어서 패밀리데이에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이 같이 공예 만들기 하다 보니 본인들이 느끼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죠. 강의보다는 그런 식의 인식개선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효과성도 높다고 봐요.” (달성군)

“출산교육의 경우 여러 번 하긴 하는데 깊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 즉 수박 걸壑기식인 것 같아요. 위낙 많은 사업들을 하라고 하거나 해야 되니까 수박 걸壑기식인 경우도 있지 않나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또 교육을 하게 되면 한국의 출산방식 등 너무 한국 중심입니다. 중국 출산방식도 있고 베트남 출

산방식도 있고 그걸 같이 혼합해서 조금 더 비교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구)

“참여도도 높아졌고, 접근방법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남편 교육합니다 오세요’ 이런 맥락이 아니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문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달서구)

4. 능력개발과 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 -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통해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의도가 증진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다문화가족의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결혼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가 장기적 측면에서 성공적 사회정착과 적응, 자아존중감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손기영, 2010)의 지적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출을 하거나 이를 친정에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보단 아이를 위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크기 때문인데요. 가족 내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지는 몰라도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달서구)

“그분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친정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하는 것이에요. 막상 한국에 와보면 대부분 넉넉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시지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나가서 좋은데서 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견해는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달성군)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양한 자격증 강좌가 센터에서 마련이 되고 여러 가지 실무적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의 강력한 취업욕구는 아직까지 언어 구사력의 미비, 그리고 취업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부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 등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2~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취업관련 교육이던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해요. 일단 기준에 그런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과제빵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는 분들은 좀 열심히 하시죠.” (서구)

“이번에 서구 원대동쪽에 직물공장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 취업을 시키겠다. 협조를 해 달라’ 하시는데 그분들 생각 하시기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몰릴 줄 아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거든요.” (달성군)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능력은 자격증보다는 주로 언어구사능력과 취업에의 책임감이 더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교육이수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취업에의 책임감을 함양하는 의식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적으로 취업 알선을 하지는 않구요. 아직까지 취업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어 수준도 기본적으로 3~4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의사소통을 했을 때 그렇게 무리가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대학졸업 등 학력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서구)

“어느 기관에서 미용기술자격증반을 20명으로 시작했는데 3~4주 지나니까 2명 남아서 강사선생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참여율이 낮았대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똑같은 직업교육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될 것 같아요.” (달서구)

“초급반 친구들은 공장 같은데도 좋다고 가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은 영어 강사나 중국어 강사하고 싶어해요. 그런 쪽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구요.” (달성군)

한편 실무자들은 자격증 위주의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나 지나친 실적위주의 취업 지향은 오히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이고 개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취업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양한 자격증관련 교육사업을 제공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다양화, 그리고 선택권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자격증 취득 이후의 일자리와의 연계 등에서 아직까지 원활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무리한 취업실적의 지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개발을 방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용직위주의 일자리만을 염두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격증 취득반이 센터의 입장에서는 진행하는데 제일 수월해요. 강좌만 개설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일제 직장보다는 약간의 경제적인 여건을 누릴 수 있는 보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원해요. 하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만 일 할 수 있는 직장이 없잖아요.” (달서구)

“작년 말부터 ‘취업 빨리 보내야 된다, 공장에 연결해서 보내야 되고, 취업자 명단이라도 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는 임금이 좀 괜찮거나 거리가 좀 가까운 경우는 홍보를 해드려요. 그러면 교육받던 인원이 다 빠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어를 조금만

더 공부하면 더 좋은 곳,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공장, 주방설거지, 부업 같은 일자리로 나가는 실정이라 안타깝습니다.” (달성군)

인터뷰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취업관련 사업들은 주목할 만하다. 달서구의 경우 2009년도 다문화교사를 양성해서 유치원, 청소년 단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호응을 받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다른 센터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 사업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지자체 등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연계성 사업 특성을 가진다. 달성군이나 서구의 경우 자격증관련 교육은 기업의 지원으로 활성화된 사례로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들 성공사례의 특징은 자녀양육이나 자신의 능력개발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자유직업이나 이민여성 본인의 지식과 역량이 사회의 문화적 관심과 연계된 문화사업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자녀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자녀양육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설동훈,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009년도에 다문화교실을 열었습니다. 우리 센터 회원들이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에 파견되어 자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수업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가르치면서 회원들이 책임감은 물론 긍정적인 사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스컴에 소개될 만큼 우리 회원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좋은 사업이라 올해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출신 강사는 7개국 출신의 15명인데 올해는 학생들 수련회에 파견되어 수업을 할 예정이고, 학생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수업에는 이미 매일 파견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신청한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작년에 라이나 생명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자격증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반, 감정사반, 조리기능 보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자격증 다 취득 하셨고, 이제 실습 준비 중인데 실습 완료하고 나면 본인이 원할 때 나가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달성군)

“작년에는 삼성생명이랑 연계를 해서 교육과 지원을 받았고 자격증 얻으신 분도 있고 현재도 자격증 공부 중이십니다. 올해도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잡코리아에서 교육을 해준다던지 자격증, 한식조리사 연계해서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서구)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운영실태를 실무종사자들의 진술한 이야기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을 떠나 그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접해온 사업 운영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종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가 ‘마을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족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보건복지부, 2005; 원광대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6; 정경희, 2006)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어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지적

한 선행연구(채옥희와 홍달아기, 2006; 채옥희 등,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그들은 가족교육사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업내용을 구체화 또는 명확화하기 어려워하고 있었고 실생활과 접목되는 내용으로 발전시키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실무종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결혼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취업에 적합하도록 갖추지 못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발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와 시설’에서의 문제이다. 센터에의 교통편의 등 접근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선정 및 실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할 듯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적으로 넓은 구역을 하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다문화가족들의 이용 빈도와 프로그램의 질이 다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둘째, 언어와 소통에 관한 지원 사업은 각 센터마다 제공되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따른 중복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쟁과 차별화를 위해서 ‘지역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자녀 언어치료 및 교육 사업은 가족생애주기에서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실무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들의 인식 부족과 언어치료사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문화적 이해와 갈등해결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일방적인 집합식 교육사업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일회성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

족, 그리고 사회적 시선 때문에 다문화가족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실무 능력 이외에도 한국어능력, 책임성과 같은 기초소양, 그리고 학력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취업성과를 올리려는 실적위주의 취업정책은 오히려 한국어교육 참여와 장기적인 직업교육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도 꾸준히 책임감 있게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직업교육 이후에 직장과 연계시키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시도했거나 제안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지역에서는 읍 단위의 거점이 마련되어 지점과 같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의 각 기초지자체에는 부녀회 조직이나 마을회관 등이 마련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은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상당한 신뢰와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성, 센터의 단체적 특성을 통해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복적 투자를 방지하면서도 각 센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한국어교육에서 있어서 지나친 센터 간 경쟁보다는 교육내용의 질적 다양성을 추구 한다던지 ‘문화 사업과 통합’하여 제공하는 등 각 센터마다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언어교육의 중복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정일선, 2006; 홍성희 등, 2009; 손기영, 2010)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학

습지원 사업은 언어치료에 있어서 협행과 같이 일대일 혹은 집단 치료로 접근하되, 대다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병행한다면 실제로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통합교육의 일회성이나 일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센터에서는 ‘남편의 자조 모임이나 문화체험을 접목시킨 지속적인 가족 통합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숨어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중요한 과제(전라남도, 2006; 최근해, 2005; 홍달아기, 2006)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방문교사를 통해서, 남편들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와의 시민모임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었다. 향후 숨어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본질적인 과제이다.

넷째, 지역기업과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그 특징은 ‘자녀양육과 가사를 병행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욕구를 반영’하였다는 점과 일용직 또는 임시직 직업지위에 있는 생산적이 아닌 프리랜서나 지식산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직업적 선호가 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결혼이주 여성들은 다문화교실의 다문화강사, 공예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공예전문가, 바리스타 등 현재 사회에서 각광받는 분야에서 종사할 때 자존감과 성취감을 얻었다. 이러한 취업을 통한 자존감의 획득, 경제적인 기여로 인해 결혼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손기영, 2010)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사업은 장

기적이고,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한 일자리 욕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지역사회의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위상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친척, 이웃,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통합사업을 통하여 숨어있는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방문교사의 역할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방문교사의 역할은 한국어 및 자녀양육의 두 분야에서 진행되지만 현장에서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서 시간과 과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사는 결혼이주여성을 최접점에서 만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대상자와 그들의 주변을 통하여 ‘숨어있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하는 디딤돌 역할’이 그들에게 더욱 요구된다. 또 방문교육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스스로 나와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초기입국 여성이나 가족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사회로 나오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출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자이며 공급자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계획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여성이나 가족원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부 사업에서의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센터 내 실무자 대표와 특정 분야의 실무자들과 면접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세부적인 측면을

다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한편 대구라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센터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서도 지역적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효과와 문제점을 비교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추출하는 시도나 센터별로 모범적인 사업사례를 빌굴하여 확대 시행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 변미희(2009). 다문화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변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23-136.
- 2) 계선자, 강혜경, 정미선(2009).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관련요인 분석: 용산구 다문화 가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31-58.
- 3)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 4) 김오남(2006a).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5) 김오남(2006b).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 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6) 김오남, 김경신, 이정화(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4.
- 7)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8)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9)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10) 보건복지부(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11) 보건복지부(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 12)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13) 손기영(2010).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본의 특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9-36.
- 14)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15)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16)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서울 : 한울, 321-349.
- 17)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2005). 전라북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고서.
- 18)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 19) 장미혜(2008).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10, 44-49.
- 20) 정일선(2006). 길찾기 -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발표집, 127-144.
- 21) 정경희(200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발표집, 145-147.
- 22) 조용환(2006).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23) 차성란(2009).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문화 통합의 지향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85-101.
- 24) 채옥희, 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응력 향상 교육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63-78.
- 25) 채옥희, 송복희(2009).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가정생활교육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07-128.
- 26) 최금해(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 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27) 통계청(2008). 인구동태 통계연보.
- 28)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29) 홍기혜(200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형태 분석.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31) 홍성희, 김성숙(2009).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119-146.
- 32) Ataca, B., & Berry, W.J.(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 13-26.
- 33) Goldman, M.(1999).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Meeting its goals in protecting battered immigrant wome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7, 375-392.
- 34) Nah, K. H.(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3), 289-296.
- 투 고 일 : 2010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4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14일

부 록

면접 질문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활동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2008~2009년 대상자들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과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보통 매스컴에 비춰지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학대를 받거나 한국문화만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나요?
- 가족들이 다문화가족 교육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나요? 가족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 센터 전체 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센터 전체 사업 중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기본교육부분에서 언어교육의 중점을 어느 정도입니까?
-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방향은 어떠한가요? 혹시 남편들의 자조모임이 활동하고 있나요?
- 가족상담도 많이 들어오나요?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받나요?
- 방문교육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언어치료사 분야도 궁금합니다. 몇 명의 대상자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을 받는 자녀의 부모님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센터를 찾아오나요?
-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은 참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 이민자여성이 취업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구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센터의 사업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센터가 다른 센터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특성이 있나요?
- 센터에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